



## 유럽증시, 추가 모멘텀 부재로 하락전환

### 유럽 증시 리뷰

4 일(월) 미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, 유럽증시는 ECB 회의 금리 동결 기대감, 중국 부동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으나, 추가 모멘텀 부재한 영향으로 하락 전환(STOXX 500 -0.06%, DAX -0.1%, FTSE 100 -0.2%, CAC 40 -0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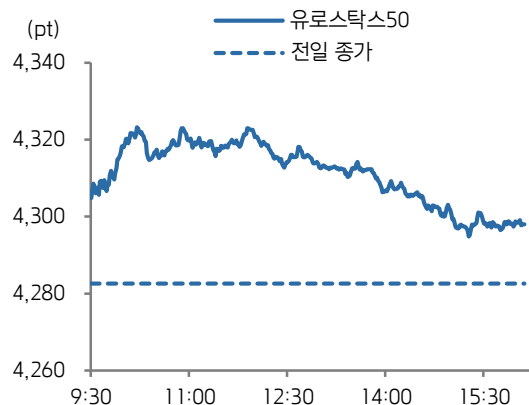
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7 천억원 규모 회사채의 상환 기간을 2026 년까지 3 년 연장을 승인 받음. 이번 채권은 9 월 4 일만기를 맞는 채권으로 향후 3 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. 비구이위안은 지난달 7 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 억달러 채권 2 종의 이자 2250 만달러(약 298 억원)를 지급하지 못하는데 이어 지난달 14 일에는 위안화 표시 채권 6 종 등 총 11 종의 채권 거래가 중단.

지난 1 일 베이징·상하이·선전·광저우 등 중국 1 선도시 에서 1 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이력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1 주택 담보대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. 베이징시의 경우, 대출기록이있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매수시 기존에는 최대 40%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기준 완화 이후 최대 65%까지 대출이 가능. 담보대출 금리도 2 주택(5.25%) 대비 약 0.7%포인트 낮은 약 4.55%가 적용.

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하에 민간경제개발국을 설치,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밝힘.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2012 년 32.1%에서 2022 년 48.3%, 납세액 기준 민간기업 비중은 2012 년 48%에서 2021 년 59.6%로 확대되었으며 발개위 부국장은 "민간경제와 국유경제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"라고 밝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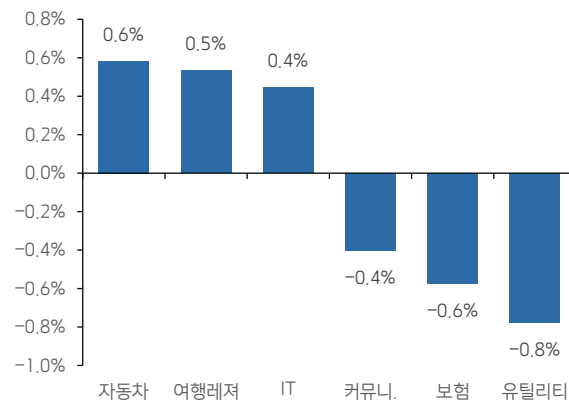
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흑해곡물협정을 중점적으로 논의. 지난 7 월 17 일 러시아의 종료 선언으로 중단된 흑해곡물협정의 재개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,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모두 이행되기 전까지는 협정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유지. 러시아는 지난달 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새로운 곡물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. 러시아가 카타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국산 곡물을 튀르키예에 할인가에 공급하면 튀르키예가 이를 추가로 가공해 필요 국가에 제공하는 방식.

### 유로스톡스50 일종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584.55	+0.81%	USD/KRW	1,319.24	+0.04%
코스피 200	341.02	+0.81%	달러 지수	104.11	-0.13%
코스닥	919.16	-0.06%	EUR/USD	1.08	+0.01%
코스닥 150	1,449.42	-0.53%	USD/CNH	7.28	+0.01%
S&P500	4,507.66	-0.16%	USD/JPY	146.48	+0.01%
NASDAQ	14,034.97	+0.11%	채권시장		
다우	34,721.91	-0.48%	국고채 3년	3.732	+4.5bp
VIX	13.57	-2.23%	국고채 10년	3.855	+7.5bp
러셀 2000	1,899.68	-0.19%	미국 국채 2년	4.879	+0bp
필라. 반도체	3,670.93	+0.74%	미국 국채 10년	4.179	+0bp
다우 운송	15,725.20	-1.27%	미국 국채 30년	4.294	+0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97.11	-0.42%	WTI	85.87	+0.37%
MSCI 전세계 지수	686.15	-0.25%	브렌트유	89	+0.51%
MSCI DM 지수	2,986.02	-0.18%	금	1964.4	-0.14%
MSCI EM 지수	980.33	-0.81%	은	24.04	-0.79%
MSCI 한국 ETF	62.45	-0.78%	구리	379.65	-0.42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22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1.17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보합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16.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미증시 휴장 및 유럽증시 약보합 결과가 국내 증시 장초반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 2.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 원/달러 환율 변화 3. 2 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8 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주식시장에서 양호하게 소화한 가운데, 향후 매크로 상 추가 결정 동인은 금주 예정된 ISM 서비스업 PMI, 연준 인사들 발언보다 차주 예정된 8 월 소비자물가에 달려있음. 8 월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는 3.5%로 7 월 3.2%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.

하지만 WTI 유가는 지난해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구간에 돌입한 가운데, 현재 85 달러를 상회하면서 6 월 이후 4 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경계 요인(6 월말 70.6 달러 → 7 월말 81.8 달러 → 9 월 현재 85.9 달러). 지난 7 월 헤드라인 CPI 상승(3.0% YoY → 3.2%)에 영향을 미친 것도 유가 포함 에너지 품목 물가의 반등에서 기인한 상황 속에서(6 월 -16.7% YoY → 7 월 -12.5%), 최근 유가 강세는 8 월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추가 반등을 예고.

현시점에서 유가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“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 →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→ 시장금리 상승”을 초래하면서 증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. 다만, 최근 미국의 노랜딩 전망 후퇴(경기서프라이즈 지수는 7 월 중 80pt 대로 ‘21 년 이후 최고치 기록한 이후 현재 52pt 대까지 하락), 미국 8 월말 기점으로 드라이빙 시즌 종료 등 수요 단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. 이를 감안 시 공급단에서는 산유국 감산 연장 불확실성이 있겠으나,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발하는 증시 변동성의 지속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.

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결과를 반영한 가운데, 외국인의 순매수 속 반도체, 2 차전지 등 양시장 주도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혼조세 마감(코스피 +0.8%, 코스닥 -0.1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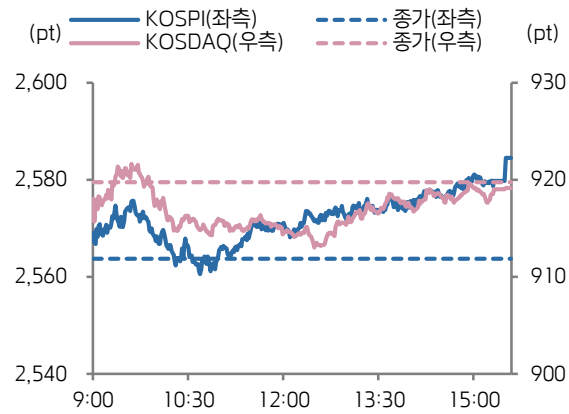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미 증시 휴장 & 유럽 증시 약보합 vs 환율 하락 등 대외 상하방 요인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 장중에는 호주중앙은행(RBA) 통화정책회의 및 그에 따른 환율 변화, 부동산 위기 진정된 중국 증시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, 반도체, 이차전지, 중국 소비 관련주 등 업종간 차별화 장세를 이어갈 전망

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환경 호전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. 2 거래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9 월 이후 외국인인 코스피를 약 7,700 억원 순매수하면서 증시 반등을 견인한 상황. 물론 추후 매크로 이벤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매매 패턴이 수시로 변할 소지는 있긴 함. 또 이들은 6 월 -1.0 조원 → 7 월 -1.9 조원 → 8 월 -0.9 조원 등 3 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기에, 9 월에도 순매도세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존재.

그러나 지난 6~8 월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(약-4.0 조원)의 대부분이 2 차전지 테마가 붙으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던 철강 업종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(6~8 월 철강업종의 외국인 순매도 -4.8 조원 vs 개인 +5.5 조원). 철강 업종의 순매도를 제외하면 반도체(6~8 월 +3.4 조원) 포함 코스피 전반에 걸친 이들의 수급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. 8 월 수출(7 월 -16.4% → 8 월 -8.4%)가 감소폭을 축소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. 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, ‘23 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6 월말 182 조원에서 9 월 현재 175 조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으나, ‘24 년 영업이익 전망은 6 월말 270 조원에서 9 월 현재 271 조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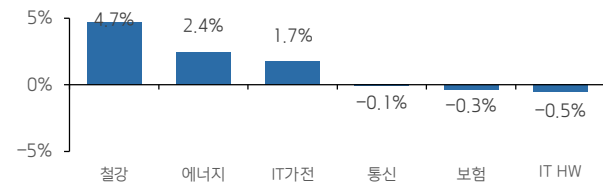
과거 외국인 순매수 패턴(2010 년, 2016 년)을 반추해보면, 수출과 이익 전망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바이코리야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. 9 월 FOMC 까지 매매 방향성은 수시로 바뀔 수는 있어도, 이들의 기초 자체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한 순매수 추세를 전제로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.

## KOSPI &amp;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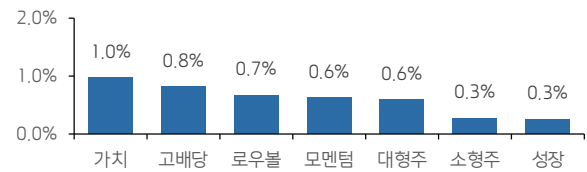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